

<省별이모저모/화동지역(상하이시)>

상하이 자동차 번호판 가격 고공행진

이상희 연구원

최근 상하이시의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2012년 3월 진행된 자동차 번호판 입찰에서 최저가는 전월보다 2,900위안 높은 5만 8300위안, 평균가는 2,993위안 높은 5만8625위안에 거래되어, 최저가와 평균가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자동차 번호판은 한자와 영문 알파벳,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한자는 차량 소재지의 성(省)이나 직할시의 약자를 표시한다. 베이징은 징(京), 상하이는 후(沪)자로 시작된다. 약자 뒤에 이어지는 알파벳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보여주고, 숫자는 차량 취득 순서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6(‘순조롭다’라는 뜻의 流와 발음이 같음), 8(‘돈을 벌다.’라는 의미의 发와 발음이 비슷함), 9(‘오래오래’라는 뜻의 久와 발음이 같음) 등이 들어간 번호판은 프리미엄이 붙어 더 높은 매매가를 갖게 된다.

번호판 가격의 고공행진은 제한적인 번호판 교부정책과 상하이 지역의 높은 자동차 구매 율에 기인한다. 상하이 시정부는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1994년부터 매달 등록 가능한 차의 수량을 정한 뒤 입찰을 통해 번호판을 공급하고 있다. 공급량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번호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상하이시 자동차 번호판 읽기

- ▶ 약자: 후(沪)
- ▶ 번호판 색깔: 노란색(대형 영업용 차량), 남색(택시와 자가용), 흰색(경찰, 무장경찰), 검정색(각국 영사관 차량)
- ▶ 남색 번호판은 沪 뒤에 A, B, C, D, E... 라는 알파벳이 붙게 됨.
- 그러나 沪C는 교외지역에서만 운행이 허락된 차량으로 시내에 진입하지 못함.



(자료: 新华网, 百度知道, 百度图片)